

PEOPLE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GICON, SW 교육 확대 ‘총력’
광주선명학교와 협약…격차 해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 11일 광주선명학교(교장 문상중)와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의 ‘교육 활성화 및 소외계층 SW 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공동 주관하고, GICON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본 사업을 통해 105명의 SW강사들을 배출했고, 125개교 1만 1358명에게 정규 SW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내 SW 교육 인프라 개선과 전문 강사 양성,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 보급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 저변 확대 목표를 수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교 특성에 맞춘 맞춤형·수준별 SW 교육 콘텐츠 개발, 소프트웨어 체험교육 및 대외 행사 연계 지원, 찾아가는 교육활동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보성 ‘생명 도우미’ 15명 위촉
마을 이장·봉사회 심폐소생술 교육

보성군은 최근 마을 이장과 여성자원봉사회원 15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교육하고 이들을 ‘생명도우미’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생명도우미’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해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보성소방서와 연계해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 강사의 체계적인 교육하에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지하게 임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nth68@gwangnam.co.kr



광주소방안전본부

여름 수난사고 대비 구조 훈련

광주소방안전본부는 12~13일 이틀간 장성군 합동저수지 일원에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물놀이 안전사고 등 수난사고 발생 시 구조대원의 수중 구조장비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훈련 첫날인 12일 5개 소방서와 119특수대응단 구조대원 120여명이 참여했다. 소방헬기·구명보트 활용 인명구조, 스킨스쿠버·개인구조장비 숙달 훈련, 드론 활용 공중수색, 수중 구조대상자 탐색 등 실전 상황을 가정한 맞춤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최정식 119대응과장은 “여름철은 수난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오월 정신·K-문화 알리자…세계 향한 첫 걸음”

광주시교육청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발대식 개최
올해 16개 프로그램 운영…학생 420여명 23개국 탐방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2025 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발대식’이 지난 11일 광주시교육청교육연구실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해 세계의 문화와 소통하는 안목을 길러, 세계민주 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발대식은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참가 학생, 인솔교사,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물놀이, K-pop 공연, 학생 체험단 선사, 프로그램 소개 토론회, 안마당, 안전교육(안전 Yes! 학교폭력, 성폭력 No!!) 등 순으로 진행됐다.

또 참석자들은 안전하고 의미 있는 현장체험

활동을 기원하며 비행기를 함께 날리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올해 프로그램은 △민주·인권·평화·통일 △역사·문화 △IT·AI △문화·예술·체육 △진로·직업 △언어·일반 △해외 봉사 △다문화 △생태 전환 △과학 △독서 등 16개가 운영되며 학생 420여명이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23개국을 탐방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 학생들이 전 세계에 5·18 광주 정신과 K-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대식에 참여한 송원교 문상현 학생은 “세계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오늘,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굳게 마음에 새겼다”고 말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11일 광주시교육청교육연구실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발대식은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이 본격 시작됐음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다”며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꿈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도, 고독사 예방 선제 대응 생성형 AI 기술교육

‘클로바 케어콜’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실무역량 강화

전남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고독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22개 시군 보건복지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시군 공공컨설팅 공동 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로 심각해지는 고독사 문제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옥상훈 네이버클라우드 부장이 강사로 나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트렌드 △인공지능 기반 돌봄 서비스인 ‘클로바 케어콜’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클로바 케어콜은 홀로사는 어르신이나 1인 가구에 자동 음성 인공지능이 1일 2회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기술이다. 전남에선 함평과 순천에서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 김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이 △고독사 위험 판단도구 체크리스트 활용법 △위험군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주제로 심화 교육을 진행했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인공지능 기술



전남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고독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22개 시군 보건복지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시군 공공컨설팅 공동 교육을 개최했다.

을 행정 현장에 적극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교육이 시군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9개 시군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AI 기반 복지행정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스마트인재개발원, 소비자선정 우수기업 브랜드 ‘대상’

IT교육 부문…실무형 인재 양성 성과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지난 11일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소비자선정 우수기업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IT교육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지난 10여년간 광주·전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 IT 분야의 실무형 인재 양성에 꾸준히 힘써온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현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과 기업 맞춤형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높은 취업률과 실전 역량을 겸비한 전문 인재 배출 성과가 주목받았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AI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기반을 다지는 데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지난 11일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소비자선정 우수기업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IT교육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기여하고 있다. 스마트인재개발원 관계자는 “광주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인재 양성과 전문기업 육성에 있어 갈 길이 먼 상황이다”며 “스마트인재개발원이 이 과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공업고등학교는 최근 학생 및 총동창회·총동창장학회 등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서평 낭독회’를 열었다.

광주형마이스터고 광주공고, ‘교내 서평 낭독회’ 개최

광주형마이스터고 광주공업고등학교는 최근 본관 1층 협의실에서 재학생 및 광주공고 총동창회, 총동창장학회 등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서평 낭독회’를 개최했다.

‘교내 서평 낭독회’는 광주시교육청이 추천하고 있는 ‘다시 책으로!.. 다함께, 책으로!’ 독서교육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지난달 28일 열린 ‘교내 서평 축제’에서 광주공고 총동창장학회가 선물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정리해 서평을 작성했으며, 이번 낭독회에서는 각자의 서평을 발표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광주형마이스터고 광주공고는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성장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조성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태호 광주형마이스터고 광주공고 교장은 “책을 읽고 생각을 표현해보는 과정은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며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희동 광주공고 총동창장학회 이사장은 “책은 언제나 어디서나 배움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좋은 친구다. 후배들이 책 속에서 꿈과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가정어린이집연합회 월례회…저출생 극복 다짐

광주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1일 송원대학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2025년 5개구 통합월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작은 손, 큰 희망.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연대와 실천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시의회 의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운영체 광산구의원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정어린이집의 역할에 깊은 지지와 감사로 전했다. 행사에서는 광주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이수현 회

장을 비롯해 각 구의 지회장과 소속 원장들 2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아동인권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중심으로 한 전문 강연이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과 양육의 가치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자들이 선정됐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 서구 아너스 회원 가입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기영)는 12일 구청 1층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서 ㈜드림카마켓 김익선 대표의 서구아너스 회원 가입식을 가졌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



송정다누리청소년문화의집 안전 살피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지난 11일 송정다누리청소년문화의집에서 광산구 안전관리자문단, 관계자 등과 함께 전기, 소방 등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산구